

★낭독 예문입니다.

[낭독1]

염상훈 지음, <나의 첫 금리 공부>

자산가치 평가의 첫걸음, 할인율에 대해 익히자

‘조삼모사’의 원숭이들은 정말 어리석은 걸까? 같은 7개여도 먼저 4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. 원숭이들은 할인율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했다.

금리는 막연하다.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다.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의미의 금리는 대출이자율이다.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금리인 것이다. 또한 내가 내 돈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곧 금리(흔히 말하는 이자)다. 하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, 이번에는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할인율로 금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.

[낭독2]

마이클 무어콕 지음, <이 사람을 보라>

"뭘 찾고 있는 거야, 칼?" 점심을 먹으며 제라드가 물었다.

"모르겠어요. 아마도 성배이지 싶어요. 예바는 제가 그걸 찾으리라고 생각한 거 같아요."

"안 될 건 또 뭐야? 요즘 그걸 찾으면 한몫 잡을 수 있을걸! 한 병 더 할까?"

"알다시피, 전 순교자가 아니에요, 제라드. 성자도 아니고, 영웅도 아니고, 그렇다고 제대로 부랑자도 아니죠. 전 그냥 저예요. 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?"

"칼, 난 자네가 바로 자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."

"그래야 당신이 제게 선심을 쓸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당신 말은,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."

"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. 한 병 더?"

"좋죠."